

##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성명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본인은 오늘 APEC 정상회의의 논의에 참여하도록 초청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PEC 경제국들은 주요 성장엔진이고 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글로벌 경제에 발생한 현재의 위험, 특히 유로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IMF의 우려, 그리고 10월에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합의한 정책적 조치에 대한 신속한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유로존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신뢰 붕괴, 성장 약화, 고용 감소와 같은 하방위험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이 위기의 해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다른 위험들, 특히 저성장 및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실업률과 관련된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글로벌 경제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특정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APEC의 선진 경제국들은 우선적으로 강력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채택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현재의 성장과 고용 문제를 해결할 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APEC의 신흥시장과 개발도상 경제국들은 사회안전망 개선, 기반시설, 보건, 교육에 대한 투자, 금융 부문 개선, 필요한 경우 환율 평가절상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호 협력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포괄적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APEC은 책임과 행동을 공유하는 정신을 구현합니다.”